

2028 달라지는 대입수시... 학생부교과 줄고 논술 늘었다

학생부교과전형 모집 333명 줄어 논술, 수도권 비중 12.7% '최고치' 변별력 위해 대학별 평가요소 강화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도권 대학들이 내신 중심의 학생부교과전형은 줄이고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을 확대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내신 5등급제 도입을 앞두고 대학들이 변별력 확보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7일 진학사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 모집인원은 2만 7886명으로 전년 대비 333명 감소했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은 4만 786명으로 1724명 증가했고, 논술전형도 1만 1443명으로 413명 늘었다.

이는 내신 체제 개편에 따라 학생 간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대학들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삼육대학교가 지난해 11월 17일 교내 일원에서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실시했다. /삼육대

한때 정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축소 흐름을 보였던 논술전형의 확대 흐름도 주목된다. 2023학년도 9133명이던 수도권 대학 논술 선발 인원은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28학년도에는 1만 1443명까지 늘어났다.

수도권 수시모집 중 논술전형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3학년도 10.7%에서 2028학년도 12.7%까지 높아졌다. ▲한양대(+57명) ▲연세대(+49명) ▲아주대(+47명) 등이 모집 규모를 확대했으며, 국민대는 2023학년도 당시 운영하

지 않았던 논술전형을 다시 도입해 확대 흐름에 합류했다.

서울 주요대학 입학처 한 관계자는 "내신 5등급제로 개편되면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더 밀집될 가능성이 높아 대학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변별

요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며 "학생부교과전형만으로는 평가에 한계가 있어 학종이나 논술 등 대학별 평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선발 방식을 조정하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입시업계에서는 이번 변화가 수험생의 전형 선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줄고 학생부종합·논술전형이 확대되면서, 내신 성적만으로 지원 전략을 세우기보다 학교생활기록부 경쟁력과 대학별 고사 준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2028학년도에는 통합형 수능과 내신 5등급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첫해인 만큼, 수험생들은 전형별 평가 요소를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번 변화는 단순한 모집인원 조정이 아니라 대학별 평가 요소가 강화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 검정고시 합격률 91%... 최고령 83세

서울시교육청,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4368명 응시, 3993명 졸업학력 취득

"평생 학교를 못 다녀 늘 아쉬웠는데, 이렇게라도 졸업장을 남길 수 있어 기쁩니다."(2026년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고시 최고령 합격자 김순자 씨(83세·1942년생))

서울에서 시행된 올해 첫 검정고시에서 응시자 10명 중 9명 이상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재소자 등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성과를 내며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오전 10시 '2026년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4368명이 응시해 3993명이 합격했으며, 전체 합격률은 91.4%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졸 합격률



ChatGPT로 생성한 검정고시 합격자 이미지.

이 전년 대비 3.4%포인트(P) 감소했지만, 중졸은 6.9%P, 고졸은 6.8%P가 각각 증가하면서 전체 합격률은 5.8%P 상승했다.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시각·지체 장애를 가진 42명의 응시자에게 대독·대필과 시험 진행 안내 등 편의 제공 서비스를

지원해 이 중 33명이 합격, 78.6%의 합격률을 보였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김순자(83), 중졸 유호준(82), 고졸 김순자(81)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유모(10대), 중졸 정지우(14), 고졸 안수현(12)으로 나타났다.

재소자를 위한 별도 고사장 운영도 눈길을 끌었다. 남부교도소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한 33명(중졸 3명, 고졸 30명)은 전원 합격해 100%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증서와 성적증서, 과목합격증서는 발표 이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급 학교 행정실과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민원실 방문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다.

합격증서는 오는 8일과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교육청 구청사 본관에서 교부된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내일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공용 급속충전기 1419기 대상 한 달에 약 15% 비용 절감 예상

서울시는 9일부터 시에서 직접 설치·운영 중인 충전기의 요금을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봄·가을철 주말 낮 시간대 충전 시 최대 약 15%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봄·가을철 낮 시간대 전력 수요를 분산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산을 통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함이다.

요금 할인은 서울시를 비롯한 기후부, 한국전력공사 등이 설치한 공용 급속충전기 1419기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할인 시간은 봄철(3~5월)과 가을철(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다.

특히 서울시가 설치한 공공 급속충전기를 기준으로 월 4회 해당 시간대에 충

전할 경우, 한 달에 약 15% 정도 충전비가 절감된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체 운영 충전기의 경우에도 같은 시간대 충전 시 킬로와트시(kWh)당 약 40.1원~48.6원이 할인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각 단지 관리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리사무소의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에버온 등 일부 민간 충전사업자도 이번 요금 인하 정책에 동참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향후 더 많은 민간 보조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 시민들이 더 디저너 저렴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정부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정책에 맞춰 서울시 운영 충전기도 할인 적용에 동참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전비 부담 완화와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평화누리길 12개 코스 걸어보세요"

경기관광공, 스탬프북 중주인증제 시행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평화누리길 도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스토리텔링 스탬프북 중주인증제를 6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모바일 앱 중심 인증 방식에 오프라인 스탬프북을 결합해 참여 방식의 다양성을 넓히고 체험 요소를 강화한다.

이번 중주인증제는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여행객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직접 도장을 찍으며 완주 과정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아날로그 감성을 더했다.

스탬프북은 단순한 인증 수단을 넘어

DMZ 접경지역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링형으로 제작됐다. 각 코스에 얽힌 설화와 지역 특색이 함께 수록돼 도보 여행의 몰입도를 높인다.

김포 1코스 손돌묘와 김포 2코스 문수산성, 연천 10코스 학곡리 고인돌 등 주요 명소에는 각각의 스탬프가 배치된다. 이용자는 코스를 따라 이동하며 도장을 수집하고 평화누리길의 다양한 이야기를 체험하게 된다.

스탬프북은 총 4800부 한정으로 제작됐다. 판매는 임진각 파주 8코스와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연천 11코스 내 굿즈 판매기에서 진행되며 가격은 권당 500원이다.



평화누리길 중주 모습. /경기관광공사

12개 코스 15개 스탬프를 모두 완주한 이용자는 연천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에서 중주 인증서와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어울림센터 내 명예의 전당 등재를 통한 기록도 제공된다. 다만 기존 모바일 앱과 스탬프북을 통한 중복 인증 시 기념품 이중 수령은 제한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성남시 "세계 전통 혼례 모습 한자리에"

10일 시청 광장서 '어울림 축제'

성남시는 오는 10일 시청 광장에서 '세계 전통 혼례 체험'을 주제로 '제15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오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상호 존중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열린 사회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는 이날 행사에 내·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일반 시민 등 약 5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념식은 오후 2시 시청 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행사에서는 28개국 국

기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개막 선언, 외국인 및 다문화 업무 유공자 6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등 5개국 전통 혼례복을 입은 신랑·신부가 무대에 올라 각국의 결혼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공연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풍물패 공연을 비롯해 아름다운 합창단, 미8군 브라밴드, 아프리카댄스컴퍼니 따그(TAGG) 등이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시청 광장에는 총 38개의 전시·체험·음식 부스도 운영된다.

/성남(경기)=유진재 기자 yujin@